이 책의 의도

그림화방의 시간은 어르신들이 빈 종이 앞에 앉는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그려야 할지 망설이던 손이 어느새 익숙한 색을 고르고, 옆 사람의 그림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한 장의 그림은 그날의 활동 결과이면서도 동시에 한 사람의 기억과 마을의 모습을 남기는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번 성과자료집은 어르신들이 작품을 고르고, 결과물 시안을 살피고, 지역주민에게 활동 이야기들을 소개하기까지의 어르신 작가들이 직접 참여한 과정을 함께 담았습니다. 특히, 그림 모음 파트에서는 각 어르신 작가와 관련된 일화, 말, 사례 등을 담아 그림과 어르신 작가의 따뜻한 일상, 생각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이 책을 펼치는 모든 분이 그림의 모양과 색뿐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어르신 작가들의 다정한 일상을 만나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 작가들의 말

"잘 그리면 어떻고 못 그리면 어때." - 그림화방 어르신 작가

우리는 주문마루센터에 모여 새와 꽃, 동물과 풍경을 그렸습니다. 어떤 날은 선이 마음처럼 나오지 않아 머뭇거렸고, 어떤 날은 옆 사람의 색을 보며 한참 웃었습니다. 손이 아픈 날에는 서로의 그림을 거들었고, 처음 온 이웃에게는 먼저 그리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책에는 잘 그린 그림과 못 그린 그림을 나누지 않고, 각자의 손으로 완성한 작품을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림을 보시는 분들이 서툰 선과 서로 다른 색까지 천천히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누가 그렸을까”
궁금해지면 작품 아래 적힌 우리 이름도 함께 기억해 주세요.

무엇보다 우리는 나의 아이들과 손주들에게 이 책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할머니가 센터에 가서 이렇게 그렸다”고 이야기하며, 우리가 즐겁게 만나고 배우며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박금순作





축하와 감사하는 말

빈 종이 앞에, 선 하나를 긋는 일은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일입니다. 주문마루센터에 모인 주민들은 그림 한 장을 완성하는 동안 서로의 안부를 묻고, 그림을 그리며 어려운 부분을 함께 채워 왔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그림에는 한 사람의 손길뿐 아니라, 오랫동안 이어 온 이웃의 관계와 주문진에서 살아온 주민들의 시간이 함께 담겼습니다.

그림화방 어르신 작가 프로젝트가 어느덧 4년의 시간을 지나 뜻깊은 결실을 맺고, 한 권의 그림모음집으로 발간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르신 작가 한 분 한 분은 자신의 기억과 생각을 색과 선으로 표현하고, 서로의 작품을 존중하며 함께 배워 왔습니다.
작품을 직접 고르고, 그림 속에 담긴 다정한 일상의 가치를 나누었으며, 굿즈를 만들고 전시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는 어르신들이 문화 활동의 참여자를 넘어 자신의 작품을 직접 만들고 지역사회에 선보이는 창작자이자 주체로 성장해 온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늦은 나이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서로를 북돋우며 한 장 한 장 작품을 완성해 온 어르신 작가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배움과 관계, 그리고 삶의 가능성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이번 그림모음집이 주민 작가들의 작품과 이야기를 지역사회에 소개하는 작은 전시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책을 펼치는 모든 분께서 작품의 완성도만 바라보기보다, 그림 안에 담긴 다정한 일상 이야기와 서로 어울리며 보낸 즐거운 시간을 먼저 만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품을 보고 건네는 주민들의 응원과 감상은 어르신 작가들에게 새로운 창작의 힘이 되고, 그림화방에서 시작된 이야기를 더 넓은 관계로 이어 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따뜻한 작품과 일상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신 어르신 작가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함께해 주신 선생님과 이장님, 지역주민 여러분, 그리고 사업을 위해 애써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강릉종합사회복지관은 주민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지역 안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그림화방의 작품과 이야기가 이 책을 만나는 모든 이웃의 마음에 따뜻한 울림으로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강릉종합사회복지관 구성원 일동



전매자作



김해자作

Contents

첫째 장. 작가소개

둘째 장. 그림 모음

셋째 장. 그림화방 사업 안내

넷째 장. 그림화방 이야기

다섯째 장. 추억 사진

여섯째 장. 맺음말

- 강사 수기
- 담당 사회복지사 수기

※부록 - 함께 그려보는 주문진



김춘자作

첫째 장.

작가소개

2026 주문진 어르신들의 이야기

First page



강청자

제 손으로 완성한 그림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되어 반갑습니다.

전매자

앞으로도 이웃들과 즐겁게 그림 그리고 싶어요.



ABOUT THE AUTHOR



이순자

잘 그리고 못 그리는 것보다 함께 그린 즐거움을 봐주세요.



김춘자

누군가 그림을 어려워할 때, '우리가 잘 그리려고 하는 게 아니야 못 그려도 괜찮아'라고 말을 건넵니다. 저도 '그림 그리러 오는 게 힘들어서 귀찮을 때도 있는데, 막상 와서 그림 그리기 시작하면 재밌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랑 선생님이 도와주니 그림이 더 이뻐지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최명옥

처음에는 그림을 너무 못 그린 것 같아 머뭇거렸지만, 나만의 방식으로 그리다 보니 칭찬받으며 한 장씩 완성할 수 있었어요. '여기 다니면서 (이웃들과) 얘기하고 하니 재밌지.' 라며, 즐겁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송자

그림을 천 가지 만 가지는 그렸는데, 뭘 그렸는지 금방 잊어버리곤 해요. 해놓으면 금방 잊어버려도 그림화방에 올 때마다 재미있습니다. 집에 가만히 있기보다 다른 이웃들과 모이는 것도 좋고요.

ABOUT THE AUTHOR



강분남

같은 그림을 보고도 다 각자 다른 그림을 그렸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이순옥

서로 어려운 그림을 채워주며 같이 그려가는 시간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이웃들과 같이 그림 그리고 싶어요.





배해옥

예전부터 활동에 꾸준히 참여했고, 지금은 날마다 주문마루를 찾는 배해옥입니다. 제가 그린 그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은 '파랑새' 그림입니다. 그림을 그리고 나서 선생님께 칭찬받았을 때면 그림 그리는 시간이 기다려지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자녀들에게 그림을 자랑하고 싶어요.



김인자

비가 오든 오지 않든 그림 그리는 시간이 즐거워서 계속 왔어요. 그림 그리고 나면 뿌듯하잖아요. 제 그림을 본 분들이 '이야, 할머니 미술 참 잘 그렸네'라고 해주면 좋겠습니다.

ABOUT THE AUTHOR



김해자

우리가 이 나이에 그림을 그린다는 게, 그렸다는 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 모든 게, 이 나이 먹도록 이제 그림 그리고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김순녀

그림을 잘 기억이 안나도 기억에 남는 것은 여기 와서 이제 다른 사람들 모여서 얘기하고, 선생님들하고 이야기 주고받고 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지요.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눈 시간이 참 소중했어요.



문옥분

제가 그린 그림을 책으로 소개하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게 되어 기쁩니다.

박금순

'못 그리면 어때, 그냥 하면 되는거지'라는 생각으로 잘하고 못하는 것보다 함께 시작하고 끝까지 그려보는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ABOUT THE AUTHOR



정경순

우연히 알게 된 그림화방에서 그림 그리는 일이 재미있어 계속 함께하고 있어요. 서로 '잘 그렸지, 못 그렸지, 너가 낫니, 내가 낫니'하며 별다른 이야기하지 않아도 함께 보내는 시간이 가장 재미있었습니다.



박정남

올해 초에 신청했을 때는 사람이 다 차 있어서 아쉬웠고, 들어오려니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해 아쉬웠는데, 그래도 오래 기다려서 그림화방에 참여할 수 있게 된 만큼 즐겁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송자作

“

둘째 장.

그림소개

”

Second page



강청자

그림을 다 칠하고 나면 선생님에게 먼저 보여주며 어떤지 물어봅니다. 덜 칠한 곳을 알려주고 도와주면 고맙다고 인사합니다. 양말목 작품을 만들던 날에는 중간중간 손이 아팠지만, 할 수 있는 작업을 끝까지 이어가며 지금까지 참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IMAGE INTRODUCTION





전매자

날씨가 엄청 좋았던 어느 날, 누군가가 그림 그리기 좋은 날이라고 신나는 말로 말하자,
나도 정말 날씨가 좋다며 맞장구치며…,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는 손도 움직이고,
옆 사람과 나누는 말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참 즐겁습니다.



김순녀

특별히 기억나는 그림을 하나 꼽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그림화방에 와서 사람들과 모여 이야기하고, 선생님들과 말을 주고받았던 시간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전부터 센터에 다니며 여러 사람을 만나왔습니다. 그림 모음집과 작품이 완성되면 손주에게 주고 싶습니다.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보다 누구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가 내게는 더 오래 남아 있습니다.

IMAGE INTRODUCTION



박금순

옆 사람이 그림을 잘 못 그리겠다며 주저할 때면,
'못 그리면 어떠냐, 그냥 한 번 해보면 된다'며 같이
의지를 다지곤 했습니다. 완성된 그림을 보니
판매해도 될 정도로 멋져서, 하나만 그린 게
아쉬울 만큼 다른 작품도 더 그려보고 싶었습니다.
고양이 그림을 보며 '조금 요상하게 생겼네.'라며
혼잣말을 했더니 교실 전체에 웃음꽃이
피기도 했습니다.





이순자

수업 시간에 다 마치지 못할 때는 재료를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집에서 남은 부분을 마무리한 뒤
다음 모임에 완성한 작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때로는 작업을 어려워하거나 손이 아픈 사람들의
작업도 함께 도왔습니다. 다른 사람이 완성한 작품을
보면서는 예쁘고, 판매해도 될 만큼 잘 만들었다고
격려도 합니다.

이제는 집에서도 만들어 온 내 작품과
서로 도우며 완성한 작품들이 한자리에 놓였습니다.



IMAGE INTRODUCTION



김춘자

옆 사람이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한 것 같다며 머뭇거릴 때,
우리는 잘 그리려고 온 것이 아니니 못 그려도 괜찮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림을 앞에 두고
망설이는 사람에게 일단 함께 해보자고 말을 건넸습니다. 나도 혼자서 모든 작업을 해내는 것은 아닙니다.
손이 아파 작업을 내려놓았을 때에는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다시 이어갔습니다. 그림을 그리러 오는 길이
귀찮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막상 시작하면 재미있습니다. 더 예쁘게 그리고 싶을 때에는 도움을 청하고,
어떨 때는 정해진 그림이기는 해도 내가 그리고 싶은 꽃도 더했습니다.



김송자

밭일을 마치고 늦게 도착한 날에도 선생님과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그림화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연락해준 것이 고마워 인사도 전했습니다. 때때로 속도가 조금 느려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되도록 적게 받으며 내 손으로 작업을 이어갑니다. 그동안 그린 그림을 금방 잊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 걱정없이 그림에만 빠질 수 있어서, 올 때마다 새롭고 즐거우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IMAGE INTRODUCTION





이순옥

옆에 같이 그리는 친구가 손이 아파 더 그리기 어렵다고 했을 때, 내가 도와주겠다고 말하고 그림의 마무리를 함께하곤 했습니다. 그 외 주변 사람들의 그림에도 손을 보탰습니다. 어렵게 보이던 그림도 직접 그리고 색칠해보니 예시로 보여준 그림과 비슷하게 잘 그린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배해옥

어느 날 나에게 선생님이 꾸준히 참여해 연필 사용이 익숙해진 것 같다고 칭찬해주니 고마웠습니다. 덕분에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재밌고, 더욱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IMAGE INTRODUCTION

김해자

주문마루센터에 다니며 한글과 노래를 비롯한 여러 활동에 꾸준히 참여했습니다. 이 나이에 내 손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이 반갑고 고맙습니다.

능소화를 그리며 집에 많이 피었던 꽃을 이야기하며 그때를 회상했습니다. 벚꽃 풍경을 보면서는 다시 봄이 온 것 같다고 말했고, 등대 그림을 보니 매일 보는 주문진 등대 같아 더 예쁘게 느껴졌습니다.





최명옥

처음에는 내가 그린 그림이 너무 서툰 것 같아 머뭇거렸습니다.
옆에서 괜찮다며 격려해주었고, 그 말을 들으며 멈추지 않고 그림을 끝까지
완성했습니다. 다른 날에는 주변 사람들과 다른 색으로 새와 꽃을 칠했습니다.
완성된 그림을 본 사람들이 색이 달라서 오히려 더 눈에 띄고 예쁘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내가 고른 색으로 그림을 잘 그려보고, 이야기도 주고 받을
수 있는 이 시간이 참 좋습니다.





강분남

벚꽃을 그릴 때에는 꽃은 예쁘지만 작은 꽃을 하나하나 그리기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꽃송이를 한꺼번에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주어 그 방법으로 그림을 이어갔습니다. 늦게라도 와서 그리고, 어려운 부분은 다른 방법을 배우며 한 작품씩 완성했습니다.



정경순

주문마루센터 근처를 지나다가 우연히 들어와 그림화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림을 그려보니 재미있어 계속 참여했습니다. 집 밖에 나와 사람들과 활동하니 시간도 잘 가고 좋았습니다. 그림의 세부 표현을 어려워하는 사람에게는 다가가 내가 아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림은 잘 그리고 못 그리는 것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그림을 보며 웃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날씨가 흐려도 우산 쓰고, 지팡이 짚고 모여 앉아서 그림 그리는 우리 모습을 보니, 참 자연스럽게 흘러가는구나 싶습니다. 잘 그리고 못 그리고는 아무 상관 없어요. 한 마을에서 그저 같이 시간을 보내는 이웃들하고 얼굴 보고, 오늘 하루도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좋은 것입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잡생각에 몸도 마음도 상하는데 여긴 우울할 틈도 없거든요.

문옥분

이웃 친구의 소개로 그림화방에 처음 왔습니다.
곁에서 도움을 받으며, 나 또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작업했습니다.
때로는 작품을 만들고 나서 선물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선생님께 양해를 구하고 추가 작품도 만들었습니다.
누군가의 소개로 처음 들어온 교실에서 다른 사람의
작업을 돕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건넬 작품을 만드는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남

처음 신청할 때는 다른 참가자들이 많아, 정원이 모두 차 있어 바로 참여하지 못하고 자리가 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린 끝에 2026년 4월에 처음 수업에 참석했지만,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 그동안은 나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는 내가 원하는 만큼 계속 참여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았습니다만, 이번에 기회가 되어 그림화방의 자리에 내 이름도 함께 남기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자作

“

셋째 장.

그림화방 사업소개

”

Third page

그림화방 사업안내

그림화방&어르신 작가 프로젝트는 어르신들이 자신의 작품을 직접 그린 후 다양한 문화 창작 활동으로 확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작품 활동이 개인의 취미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와 만나는 과정으로 이어지도록 하며, 어르신이 복지 지원과 돌봄의 대상만이 아니라 마을의 작가이자 문화 생산자로 인식되는 계기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격적인 어르신 작가 프로젝트 진행 중에는 기존 작품의 취합과 보완, 새로운 그림 그리기, 활동 기억 정리, 굿즈 품목 및 시안 검토, 시제품 확인, 작가 위촉과 마을출판회, 온라인·오프라인 전시, 주민 응원 메시지 수집 등을 어르신 당사자들과 단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사업 안내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이 지역사회 고민을 직접 찾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현재 강릉시 주문진읍 일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제2기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사업은 2023년에 선정되어 2026년 올해 최종 마무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위 치 등대길 16-1, 2층 | **연락처** 033-661-6375 | **홈페이지** gssw.or.kr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명	제2기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사업 '그림화방' & '어르신 작가 프로젝트'
기 간	2023년~2026년
장 소	주문마루센터 프로그램실
대 상	주문진읍 지역주민(주문1·2·5·7·8리 지역주민) 15명
주요내용	그림 배우기, 그리기, 모음집 구성과 굿즈 제작 과정을 함께 고민하고 참여하기

PROJECT INFORMATION

추진 배경과 필요성

1 사업지역의 배경 및 현황

「2025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가장 큰 원인으로는 '경제적 부담'이 꼽혔습니다. 이는 어르신일수록 비용 부담이 큰 여가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대도시의 문화·예술 향유율(60.5%)에 비해 읍면 지역(48.5%)은 상대적으로 낮아 지역 간 문화 격차와 소외 현상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릉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한 「2024년 지역주민 욕구조사(주문진 주민 만나기)」에서도 주문진읍은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시설과 환경이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이에 따라 주민분들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매우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2026년 행정동별 연령별 인구현황」 기준, 주문진읍 전체 인구(15,298명) 중 60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7,692명으로 전체의 50%를 넘어 초고령 사회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문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경제적 부담과 인프라 부족은 어르신들이 문화·여가 활동에 참여하고 이를 지속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관에서는 지역 간 문화 격차를 줄이고, 주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미술공예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2 미술 프로그램과 삶의 질의 연관성

미술 활동은 외로움이나 불안감 같은 마음의 짐을 덜어주고, 정서적 안정과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여럿이 함께하는 미술 프로그램이 어르신들의 우울감을 줄이고 소외감을 해소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술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 작가님들의 인지 기능을 돕고, 스스로 작품을 완성해 가는 과정을 통해 성취감과 자아존중감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나아가 함께 모여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는 소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울감과 고립감을 줄이고, 따뜻한 이웃 관계 속에서 삶의 활력을 찾으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3 커뮤니티 아트를 통한 지역 공동체 · 정체성 활성화

'커뮤니티 아트(공동체 예술)'란 우리 동네의 환경과 주민들의 마음 등 지역의 특성을 담아 마을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예술 활동을 뜻합니다. 그림화방 사업은 지역사회와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마을 공동체성을 더 깊게 다지고, 주문진만의 고유한 문화와 따뜻한 이야기를 담아 지역 기념품(굿즈)을 제작하고자 시작되었습니다.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에 그치지 않고, 이웃과 이웃을 이어주는 따뜻한 관계망을 넓혀 가며 지속 가능한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자 노력했습니다.

1) 국가데이터처, “2025년 사회조사 결과 보도자료”, 사회통계기획과(2025)

2) 한국교원대학교, “농촌 지역 노인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에 관한 사례연구”, 최진주 (2025)

3) 강릉종합사회복지관, “주문진 주민만나기”, 강릉종합사회복지관(2024)

4) 행정안전부, “행정동별 연령별 인구현황”, 행정안전부 주민과(2026. 1.)

5) 캐어유 뉴스, “[조영숙 칼럼] 어르신들을 위한 미술 활동의 효과”, 조영숙(2025)

6) 한국공간디자인학회, “지역 정체성 기반 주민참여형 커뮤니티 아트 활성화에 관한 연구 – 국내 지역연계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효연, 최익서(2020)

목적과 성과·주민들의 변화 측정

1 목적: 미술 활동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체성 강화

2 연도별 성과(※2026년 사업은 현재 진행 중)

가. 산출목표

연도별	달성 수준			모니터링 방법
	건(회)	실인원(명)	연인원(명)	
2023년(시범운영)	10	7	29	· 프로그램 운영일지 · 사업계획 및 결과보고 · 활동사진
2024년	32	18	226 (전년대비 680% 증가)	
2025년	38	19	423 (전년대비 87% 증가)	
2026(1~7월)	17	19	195	

나. 성과목표

연도별	성과 목표	달성 수준		측정결과
		자료수집방법	측정시기	
2023년 (시범운영)	기초역량, 주민교류증진	자체 설문지	사후측정	평균 4.8점/5점 달성
2024년	여가만족도 증진	여가만족도	사전-사후	0.4% 향상
	주민관계망 증진	주민관계척도	사전-사후	3.8% 향상
2025년	심리적 안녕감 증진	심리적 안녕감 척도	사전-사후	8.6% 향상
	마을공동체 강화	공동체의식 척도	사전-사후	11.4% 향상



이순자作

“

넷째 장.

그림화방 이야기

”

Fourth page

그림화방 이야기

일주일에 한 번, 우리에게 생긴 약속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은 그림화방에 계속 오는 이유를 삶의 즐거움이라고 말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올 곳이 있다는 것이 즐겁다고 했습니다. 같은 사람은 처음 그림을 그리던 날이 새삼스러웠고, 그림을 그리고 나니 기분이 좋았다고 기억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날에 만나 그림을 그리는 시간은 그렇게 우리 생활 속의 작은 약속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배워 가기

다른 활동에서는 준비된 밑그림에 색만 칠하기도 했지만, 그림화방에서는 종이에 처음부터 그림을 그리고 색칠까지 했습니다. 샘플을 살펴본 뒤 각자 연필을 들고, 자신이 원하는 색을 골랐습니다.

같은 그림을 보면서도 결과는 모두 달랐습니다. 누군가는 등대 옆에 꽃을 더했고, 또 다른 이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색으로 새와 꽃을 칠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색이 오히려 더 눈에 띄고 예쁘다고 말했습니다.

한 손이 멈추면 옆 사람의 손이 이어지고

우리 그림화방에서는 도움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손이 아픈 이웃의 그림을 마무리했고, 그렇게 모두가 주변 사람들의 그림에도 손을 보탰습니다. 잘 모르는 부분은 직접 그려주고, 알려주면 해결했습니다. 한 사람의 손이 잠시 멈추면 옆 사람의 손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그림을 보며 떠올린 옛날과 오늘

새 그림을 그리던 날에는 어린 시절 거위와 칠면조를 키웠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키우는 건 우리가 열심히 키우고, 다 남들이 먹었던 아쉬웠던 기억을 털어 놓는가 하면, 능소화를 그리면서는 집에 많이 피었던 꽃을 잘라냈던 일과 예쁜 꽃을 왜 잘랐는지를 두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벚꽃 풍경을 보며 다시 봄이 온 것 같다고 말했고, 등대 그림을 보면서는 매일 보는 주문진 등대 같아 더 예쁘다고 했습니다.

그림 한 장 앞에서 어린 시절의 동물과 옛집의 꽃, 지금 우리가 사는 주문진의 이야기가 함께 펼쳐졌습니다.



김인자作

잘 그렸니 못 그렸니, 웃음이 먼저

우리에게는 저마다의 생활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거나 몸이 불편한 날도 있고, 밭일과 가족 일정, 반려동물을 돌보느라 늦거나 쉬는 날도 있었습니다. 어떤 날에는 작품을 끝까지 만들고, 어떤 날에는 도움을 받거나 어렵다고 말하며 쉬었습니다. 작은 꽃을 하나씩 그리기 어려울 때에는 선생님이 더 단순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늦게 온 사람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응원하며 함께 진도를 맞췄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하루를 안고 와서, 그날 가능한 만큼 함께 그렸습니다.

색과 재료를 건네는 손

그림을 그리다 보면 옆 사람의 색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어떤 색이 어울릴지 이야기하고, 필요한 파스텔을 건넸습니다. 먼저 방법을 익힌 사람은 오일파스텔 사용법과 색을 조합하는 방법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모두 같은 색으로 칠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각자 고른 색을 바라보며 서로 예쁘다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그림에는 그 사람이 고른 색과 함께 옆자리에서 건넨 재료와 말도 담겼습니다.



유운순作

그림을 마친 뒤에도 함께

작업이 끝나면 흩어진 재료를 한쪽에 모아 다음 시간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책상에 남은 파스텔 자국도 각자 역할을 나눠 돌아가며 잘 닦았습니다. 그림이 완성됐다고 해서 우리의 시간이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함께 사용한 재료를 모으고 책상을 닦은 뒤에야 한 번의 그림 시간이 마무리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열어준 문

그림화방에 처음 들어오는 길에는 먼저 와 있던 사람의 소개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아는 이웃들이 늘어갑니다. 새로오면 수업이 시작된 뒤에도 곁에서 챙겼고, 다른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이야기 나누도록 서로 함께했습니다.



이순옥作

“

다섯째 장.

추억사진

”

Fifth page

2024년

익숙함과 실력이 쌓인 해






















2023년

그림화방과 처음 만난 해





2025년

작품이 마을을 만난 해













2026년

어르신 주민 작가의 이름으로-



이순자作

“

여섯째 장.

맺음말

”

Sixth page

선생님 수기

본격적인 첫 발걸음을 뗀 후 어느덧 4년이라는 소중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붓 잡기조차 어색해하고 망설이시던 어르신들이 이제는 누구보다 먼저 재료를 챙겨 오십니다. 평생 접해보지 못한 그림을 시작하는 데에는 큰 용기가 필요했기에, 저는 기술을 가르치는 강사보다 정서적인 온기를 전하는 동반자가 되고자 했습니다.

수업 시간마다 보여주신 어르신들의 열정은 늘 깊은 울림이었습니다. 손끝이 떨려도 선 하나 놓치지 않으려 몰입하고, 완성된 작품을 보며 "그림 그리는 시간이 제일 재미있다" 활짝 웃으시던 모습은 가장 가슴 뿌듯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림이 마음처럼 안 될 때 낙담하는 대신 "잘하려고 했는데~" 하며 '6학년 6반' 노래로 유쾌하게 넘기시던 모습은 어느새 우리 교실의 정겨운 애창곡이 되었습니다.

무더위를 뚫고 걸어오시는 모습, 밭일을 마치고 흙이 채 털리지 않은 손으로 오시는 발걸음 모두가 감동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컨디션이 힘드신 날에도 "쉬다 가셔도 좋으니 부담 없이 오시라" 건넨 배려가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이제 어르신들은 신규 회원이 오시면 "처음엔 다 그렇다"며 다독이고 서로를 아낌없이 칭찬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셨습니다.

초기의 어색함을 이겨내고 마침내 멋진 '마을 작가'로 데뷔해 작품집과 굿즈, 전시회를 선보이게 되신 모습에 가슴이 뭉클하고 설렙니다. 어르신들과 깊은 유대감을 나누고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뒤에서 늘 챙겨주신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문마루센터에서의 시간들이 어르신들의 일상에 따뜻한 웃음꽃을 피우는 공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늘 열정으로 함께해 주신 우리 어르신들, 그저 아프지 마시고 매일 유쾌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늘 곁에서 마음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그림화방 김라영

담당 사회복지사 수기

4년이라는 긴 시간, 그 안에 쌓인 어르신들의 노력과 행복, 차마 다 적어내지 못할 무수한 감정을 책 한 권에 담아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소중한 순간들을 아름다운 기록으로 남길 수 있도록 애써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함께한 시간은 그 절반에 미치지 못하지만, 주문마루센터를 찾아주시는 어르신들과 이 지역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못한다", "해본 적이 없다"며 망설이시던 어르신들도 직원들의 따뜻한 온기 속에 조금씩 마음을 열고 큰 용기를 내어주셨습니다.

특히 '그림화방 어르신 작가 프로젝트'를 통해 도화지를 채워가던 순간들은 오래도록 잊지 못할 장면이었습니다.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공간을 채워주시던 어르신들의 모습은 그 자체로 가슴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붓도, 연필도 어색해하시던 분들이 저마다의 추억을 자신만의 색과 모양으로 담아내고, 손끝이 떨리는 순간에도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작품을 완성하고 아이처럼 기뻐하며 새로 오신 이웃에게 다정한 응원을 건네는 모습 속에서, 우리 수업은 단순한 배움을 넘어 서로의 마음을 채우는 소중한 울타리가 되었고 어르신들은 멋진 작가님이 되셨습니다.

이번 그림 모음집이 단순한 작품으로 읽히기보다, 어르신들의 다정한 일상과 우리 동네의 정겨운 온기를 함께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서로를 챙기며 만들어낸 진심 어린 웃음이 이 책을 펼치는 모든 분께 따뜻하게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늘 함께해 주신 어르신 작가분들과 선생님, 지역 주민분들, 그리고 마음을 모아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문마루센터가 기분 좋은 웃음을 선물하는 공간이 되길 바라며, 어르신들의 오늘이 늘 선물같은 하루가 되도록, 곁에서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최태경



전매자作

CLOSING REMARKS



배해욱作

“

부록.

함께 그려보는 주문진

”

Appendix page

컬러링북 사용 안내

이 도안은 그림화방 주민 작가들의 작품과 주문진의 풍경을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견본과 같은 색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에 드는 색을 고르고, 빈 곳에는 자신이 기억하는 꽃과 동물, 마을 풍경을 더해 보세요. 완성한 그림 아래에는 이름과 오늘의 기분을 적어도 좋습니다.



최명옥作



주문마루센터 정경





주문진 등대



마을전경





어르신 작가 그림中



어르신 작가 그림中



2026년 강릉종합사회복지관
그림화방(4차년도) 그림모음집

그려보니 좋더라

발행처 사회복지법인 월정사복지재단 강릉종합사회복지관

발행인 관장 김미현

발행일 2026. 9. 30.

편집인 최태경, 전근홍

어르신작가

강분남, 강청자, 김송자, 김순녀, 김인자, 김춘자, 김해자, 문옥분, 배해옥, 박금순, 박정남, 이순자, 이순옥, 전매자, 정경순, 최명옥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변로 510, 강릉종합사회복지관

대표전화 033-653-6375

이메일 gssw6375@gmail.com

홈페이지 www.gssw.or.kr